

청소년 끼·열정 맘껏 펼치다

‘제3회 전주시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 전주교대서 열려

전주시와 전주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신운호)는 지난 2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관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주시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이후 5년만에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전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 분야의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각자의 끼와 열정을 선보이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콘서트에는 초·중·고 학교 동아리 등 32개팀이 신청하였으며, 예선 심사를 통해 초등부(전주교대부설초, 자연초, 장동초, 여울초, 서일초, 서신초 등) 11개팀과 중·고등부(덕일중, 성심여중, 효정중, 서신중, 기린중, 전주사대부고 등) 10개팀 총 21개팀이 공연을 펼쳤다.

참여팀들은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으로 나누어 멋진 공연을 펼쳤으며, 이날 행사장에는 청소년들에게 지루하지 않도록 진북꽃길작은도서관과 자갈자갈작은도서관에서 무료 체험 행사를 같이 진행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 전주시 새마을회, 전국학교



전주시와 전주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지난 2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관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주시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를 개최했다.

운영위원연합회, (유)일호네트웍스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물품을 후원해 주었으며, 서신지역아동센터, (주)노랑푸드, (주)재능교육, (주)가보자, (주)코아바이오 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떡볶이, 어묵, 치킨, 팝콘, 식혜, 콜푸차 등의 간식을 후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오랫동안 열리지 못한 청소년 행사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많은 청소년과 전주 시민이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 깊다”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하고 도전정신을 갖는 주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 활동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신운호 전주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 함께 즐기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Food로 소통하다 시즌 2’ 열려

전북문화관광재단, 식품관련 이색 컨퍼런스 ‘넥스트 마스터즈’ 개최

식품관련 이색 컨퍼런스 ‘넥스트 마스터즈 2023’이 6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큐레이션 커머스 미미호호가 주관하는 ‘넥스트 마스터즈 2023’은 꾸준히 성장 중인 전북 소재의 식품기업과 전국의 유망한 식품기업이 모여 기업의 성장 전략과 그들의 철학, 브랜딩과 마케팅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전북, Food로 소통하다 시즌 2’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Farming, F&B, Local’이라는 소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펼쳐졌다.

‘Farming’ 세션에서는 마담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전대경 대표의 강연을 통해 온라인이 유일한 기회였던 코로나 시기에 ‘비비브레드’라는 브랜드로 천연 발효종을 접목한 빵을 만들어 새로운 기회를 모색, 글루텐 시대에 맞게 쌀빵, 라이스팁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 사례를 엿볼 수 있었다.

이어 디자인농부 김요섭 대표의 ‘농업에 가치를 더하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는 특별히 패키지에 담은 제품을 소비자의 눈에 띄게 하는 것에 집중한 사례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

또 ‘F&B’ 세션에서는 성수동 외식업 1세대로 알려진 33Table의 이남근 대표의 성수동에서 9년을 버틴 이야기와, 다섯 번 폐업 후 줄서는 대박식당으로 탈바꿈한 대산보리밥에 이문규 대표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창업 시장을 이겨낸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마지막 Local 세션에서는 세계최초 소나무 싹재료를 원재료와 차와 소금을 개발해 소나무 식품 브랜드를 만든 최훈석 대표 이야기와, 풍기인삼으로 지역문화를 만들고 있는 김민정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디자인과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특히 ‘K-열풍은 이제 시작!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팔아보세요’라는 제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K 열풍 시장을 활용한 무역업계의 마이더스의 손, 지열알코리아 최현주 대표의 발표는 세계 속 한국의 열풍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의 특화산업인 식품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망해사’ 국가 명승지 지정 도전

김제시, 자연·생태·역사·문화 어우러진 망해사 일원 지정 총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서부권 핵심 유적이라 할 수 있는 ‘망해사’ 일원을 지난 5월 국가 명승지로 신청한 가운데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해사는 이름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으로 642년 백제 의자왕 때 부설거사가 세운 것을 당나라 승려 종도법사가 중창하였으며, 조선 선조 때의 이름난 선승 진묵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며 낙사전과 팽나무를 심었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새만금의 중심이자 만경강 하구에 위치한 망해사의 국가 명승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새만금 사업으로 망해사 앞 바다가 답습화 되면서 멸종위기 철새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생태를 연구하는 국립기관의 데이터에서는 검은머리물떼새나 물수리와 같은 멸종위기 종도 망해사가 위치한 만경강 하구에 찾아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종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서라도 명승지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망해사는 고지도나 지리서에 만경관과의 함께 빼집음이 등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우편엽서의 배경사진이 되었던 점, 조선분화의 최정정을 이루었던 윤선도



망해사 관련 동영상

의 시(詩)에 등장하는 점을 보아도 망해사는 예로부터 명승지로 널리 인정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망해사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제시민들에게도 망해사는 바다에 대한 기억이자 지역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국가 명승지로 지정될 시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자연과 생태,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망해사 일원을 보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김제시민의 기원을 담아 국가 명승지로 지정되는 그 날까지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창작음악공연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12월 송년음악회 첫 공연으로 직접 만든 업사이클 악기와 어쿠스틱 악기를 활용한 창작음악공연 ‘즉흥적 발상’을 오는 9일 오후 4시 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3년 전주 신진예술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금 연주자 황보석씨가 기획한 공연으로 쓸모가 없어져 버려지는 물건들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악기 디자인과 아이디어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부가해 제작한 악기를 선보인다.

특히 기존 클래식 악기의 엄격함과 정형성에서 탈피해 즉흥적인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르인 재즈를 업사이클 악기와, 드럼, 기타, 신디, 베이스, 특수 악기 등을 활용해 한국전통 음악의 어법과 색채를 담아내 관객들에게 생생한 현장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대금 연주자 황보석씨는 “폐기물을 줄이면서 고품질의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악기 제작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연발표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부안 전통예술원 타무 농악단, 전북 시·군농악경연대회 ‘대상’

부안군은 부안의 전통예술원 타무 농악단이 최근 익산 미륵사지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제42회 전북 시·군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전라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통예술의 계승발전과 지역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국악대회로 올해는 익산의 미륵사지 주차장과 익산문화원에서 2일과 3일에 걸쳐 개최되어 열린 경연의 장을 펼쳤다.

전북 시·군 농악경연대회에는 총 12개의 팀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맘껏 뽐내며 농악 연주 실력을 겨뤘다.

대영경 전통예술원 타무 농악단장은 “부안을 대표하여 출전한 시·군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그동안 함께 연습하고 실력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부안 지역 농악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전통 농악의 보존과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성예진 작가 첫 개인전 15일까지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5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미루 전시실에서 성예진 작가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예진 작가는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호에 대해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했고, ‘마음속 울림’, ‘두근대는 심장 소리’, ‘일렁이는 파도의 굴절’, ‘오감을 깨우는

선율’, ‘뒤엉킨 나무의 호흡’ 등 무한한 생명의 파동을 작품에 담았다.

작가는 “다양한 자연의 소리에 몸을 맡기고 그 울림 속에서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써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전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 관련한 자세한 문외는 전북예술인복지센터(063-230-7430~7433)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